안개속에 속살 감춘 '보배중 보배'

다도해의 보석 섬 ⑥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광주에서 3시간 넘게 내달려 도착한 진도군 지산면 가학항 선착장은 이미 '안개의 포로'가 돼 있었다. 바다와 산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웬만한 폭우 속에서도 30분 거리는 끄떡없다던 철부선도 도무지 힘을 못썼다. 몽롱한 바다가 저 멀리부터 밝아오나 싶더니 끝내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다시금 잠기길 2시간 넘게 반복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꿔놓고 싶은 충동이 차고 넘칠 때쯤, 뭍을 향한 섬사람들의 설움을 곱씹어 보기를 수 차례 하고 나서야 가사도(加沙島) 가는 길이 열렸다.

가사도(면적 8.08㎢) 가는 길은 녹록하지 않다. 철부선을 타고 30분 거리, 가학항에서 직선 거리로 6.1㎞에 불과한 섬이지만 해류 영향으로 1년의 반 이상 안개에 잠겨 있는 섬이어서다.

안개 속에서 등대가 불을 밝히고 모래 해수욕장과 갯벌이 눈을 뜨는가 하면, 주민들은 안개를 헤치고 도로변에 톳을 내놓아 말린다. 낯가림을 해서일까. 가사도 어류포 선착장에서 만난 한태철 진도군 가사출장소장은 "요즘 안개가 부쩍 진하게 낀다"면서 "날이 좋으면 다도해 절경이며, 낙조가 장관인데…"라며 아쉬워했다.

뿌연 안개를 헤치고 가사도 선착장을 나서 해안도로에 접어드니 톳 말리기가 한창이다. 짠 내가 가시지 않은 톳이 햇살과 해풍을 맞아 내놓은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도로를 가득 채웠다.

도로변 톳은 앞바다에서 막 건져올려 갈색의 윤기나는 생톳과 따사로운 여름햇살에 잘 말려진 검은색으로 나뉜다.

이곳 주민들의 주업은 섬인데도, 어업이 아니다.

섬의 명칭이 '중이 입는 옷'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탓에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살생하면 벌 받는다'는 불교적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고기를 잡는 어업도 살생이니 하면 망한다'는 말도 주민들은 허투로 듣지 않았다. 고기를 잡는 어장과 어업을 하다 실패한 사례도 주민들의 삶을 어업에서 한 발 비켜나게 했다.

주민들이 살생을 피하며 주소득원으로 삼은 게 톳이다. 연간 200t이 넘는 생산량을 올리는 톳은 전량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품질이 좋다. 섬 주민들 중 100층(층은 톳을 셈하는 단위로, 1층은 말린 톳 60㎏)이상 하는 주민들도 30명을 웃돌고 최고 300층을 재배하는 주민도 있다.

톳 재배로 부자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전체 주민 수가 168세대 313명이 고작이지만, 한 때 가사도내 가사·궁항·돌목 등 세 마을 주민들만 1000명이 넘었을 정도로 북적댔다는 것이다.

돌목마을 박상술 이장은 "주민들이 공동 작업으로 톳 생산에 매달리던 80년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조도면 41개(지금은 39개) 마을 중에서 최고 부자 마을이었다"고 회고했다. 80㎏ 쌀 한 가마에 4만5000원~5만원 하던 시기에 말린 톳 60㎏이면 22만~23만원을 받을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나 마을 회관에서 아낙네들이 치마저고리에 돈을 쓸어담아갔고 다른 마을에서 4부 이자를 쥐가며 돈을 빌리러왔다는 것이다.

젊은 부자들이 뭍으로 눈을 돌려서일까. 100명이 넘게 살았다는 돌목마을은 현재 주민 수도 20명 정도가 고작이고 논과 밭도 휴경된 게 많다.

마을 인근 돌목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가 500m 이상 펼쳐지고 수심도 완만해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더할 나위 없지만 사람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데다, 안개가 내려앉아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묻어냈다.

가사도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다. 등대, 해수욕장에 동굴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췄다.

이 때문에 안개가 뭍으로의 발을 묶고, 점점이 흩뿌려진 다도해 절경을 확인하려는 사진기자의 눈을 끊임없이 가리는데도 주민들은 넉넉하기만 하다. "좋은 사람 왔으니, 섬 돌면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볼 것 다 보고 가라고 붙잡는 것"이라며 웃는다. 한 소장도 "맑은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다양한 섬 풍경을 접할 수 있다"고 위로했다.

진도군도 섬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조금씩 개발을 추진,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 한쪽 끝 벼랑에 서 있는 가사도 등대. 15초에 1 섬광을 뿜어낸다는 등대는 안개를 깔고 앉은 듯했다.

맑은 날이면 희귀한 형상으로 늘어선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형상의 사자도(광대도), 섬 정상에 엄지손가락 같은 바위가 솟아 있는 손가락섬(주지도), 발가락 모양의 바위 2개가 얹혀 있는 발가락섬(양덕도), 퇴적암층이 마치 불탑처럼 쌓여 있는 불도 등 섬마다 품고 있는 사연과 모양새도 제각각이다.

재미로 듣는 전설이지만, 구수한 이야기와 섬의 모양이며 이름에 딱 들어맞는 것이 상상력도 참 탁월하다.

한 소장은 "9월께 무인등대를 유인 등대로 바꾸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등대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자연경관에 등산로까지 조성돼 있어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의 십자형 동굴도 숨겨진 장소다. 일제시대 규석광산으로 파낸 동굴은 폭 2.5~3.5m, 높이는 1.6~2.8m로, 동서로 170m 뻗어 있다. 동굴 속에 샘은 가뭄 때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개발이 되지 않아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탓에 박쥐가 날아다니는 진풍경도 접할 수 있다. 박 이장은 "예전에는 황금박쥐도 서식했는데, 낯을 가리는 모양"이라며 웃었다.

낯에도 자욱한 안개는 결국 하루 세 편인 뱃길을 끊었다. 예약도 없이 불쑥 머무르게 된 외지인들에게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만 주는 것"이라며 떡돔이며 갖은 자연산 나물을 내놓으며 유난히 천천히 가는 섬에서의 시간을 달래주는 인심이 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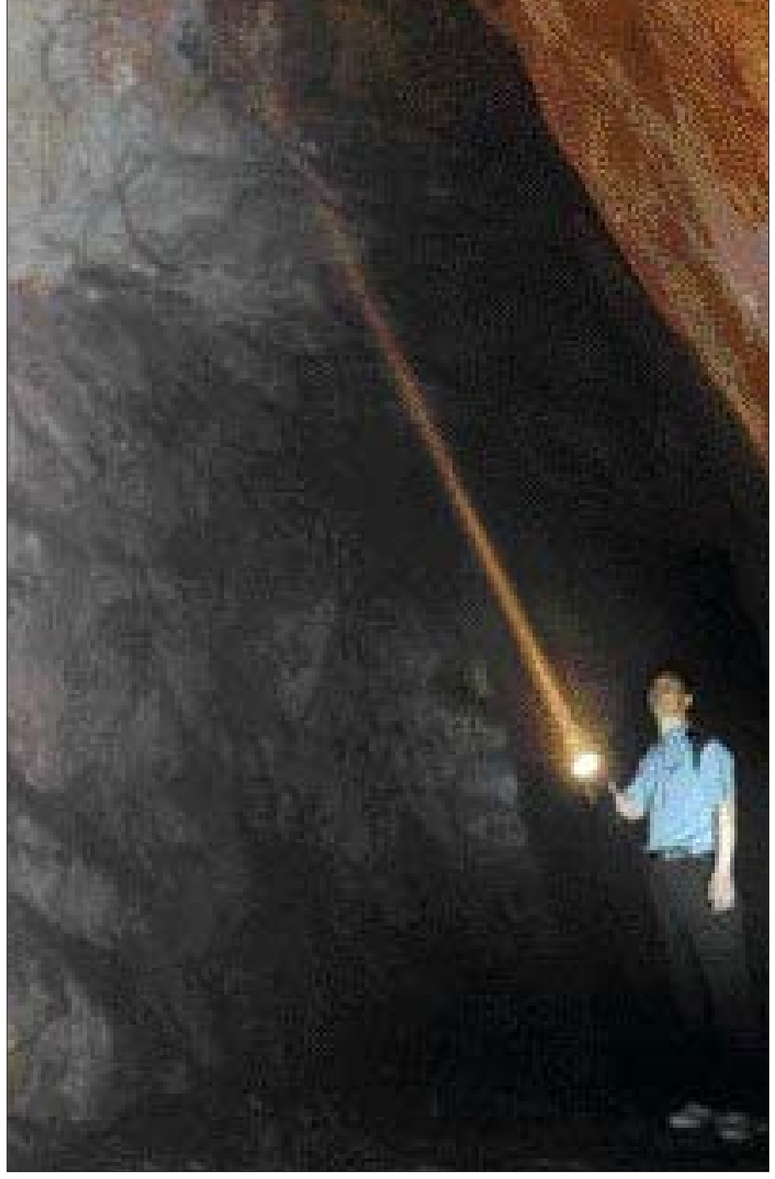
진돗개와 진도대교, 이순신 장군 동상, 세방낙조, 운림산방, 진도아리랑 등 갖은 관광자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사도까지 가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 300여명이 연간 톳 200t 생산·수출 '부자 섬'

기암괴석·등대·십자 동굴…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

마을 주민들이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톳을 말리고 있다. '어업은 살생이라 좋지 않다'는 불교적 관념이 전해내려오면서 주민들은 톳 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제시대 때 규석 광산으로 파냈던 십자 동굴은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진풍경을 접할 수 있는 장소다. 가사도는 등대, 해수욕장에 동굴까지 개발되지 않은, 볼거리가 많다.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 다양한 관광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